



※ 스포일러 주의

	<p>소년을 읽다</p> <p>저자 서현숙 출판 사계절 발매 2021.01.25.</p>
--	--

지난해 11월 초, 책 좋아하는 대학 후배에게 에세이와 한국 문학을 한 편씩 추천받았습니다. 책 중에서도 특히나 에세이와 한국 문학은 잘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걸 한 번 꺼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에세이로 추천받은 책입니다. 읽으면서 토막글 메모해놨던 것들을 모아 장 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봄>

프롤로그에 작가가 소년원 생활관 환경 개선 법무부 계획 관련 기사 댓글 보고 섬찔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세금 아깝다', '꽤심한 놈들' 이런 댓글. 만약 저보고 댓글 남기라고 했다면 비슷하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엔 소위 '죽일 놈'들이 많고, 많은 네티즌은 죄만큼 형량이 높지 않다 생각되면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할 때가 많고요. 범죄자가 교도소 구경도 못 해본 이보다 좋은 환경에서 뜨신 밥 먹을 수도 있다는 게 충분히 꽤심하게 느껴질 법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와 겪어온 삶을 토대로 어렵פות이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한없이 크고 입체적인 다면체입니다. 자극적인 한 면만 보고 전체를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매우 낮은 확률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책에서 예시 하나 꺼내봅니다. 책에서는 '오늘의유머'에서 시작해 성공한 김동식 작가가 언급됩니다. 여담이지만 '인터넷 카페'라는 단어 선택을 보고 작가님이 인터넷 문화에 익숙지 않은 연배가 좀 있는 분이라 느꼈습니다. 실제로 글에 한자 병기하며 한자어를 많이 쓰십니다. 저는 해당 커뮤니티를 잘 모르지만, '디시인사이드'의 '카툰-연재 갤러리'나 '루리웹'의 '음식 갤러리'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이말년', '기안84', '승우아빠'가 발굴된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커뮤니티 출신 작가들은 그들이 몸 담근 커뮤니티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논란이 생겼을 때 커뮤니티의 수많은 유저들이 저질러온 잘못 등을 근거로 해당 커뮤니티 유저 평균이라 조롱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이들의 과거 모든 행적을 몰가치한 것으로 평가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간혹 보았습니다. 그러나 디시인사이드, 오늘의유머 등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들 중에서도 '침착맨' 유튜브는 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회색인간'을 흥미롭게 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들을 이중적이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쓰면서도 적절한 비유인가 싶고, '내가 원데' 싶은 마음이 생겨 조심스럽지만 손 가는 대로 그냥 계속 쓰겠습니다. 일면만 보고서 완벽히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달을 보듯 내가 바라본 면 하나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여러 상황과 다른 면을 보며 자신만의 정답을 내릴 뿐입니다. 그걸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고, 그저 설득할 뿐입니다. 작가는 소년원에서 만난 소년들을 자신이 읽은 대로 묘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우리를 설득합니다.

책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니, 저는 최대한 그에 공감하면서도 차가운 시선도 함께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처벌 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과 함께 아이들이 살아온 배경이 묘사된 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동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괴심한 짓을 했고, 그에 걸맞은 형량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작가 말마따나 그레봐야 주 2시간 수업으로 만난 아이들인데, 그 외 시간에 이놈들이 뭘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독 10페이지도 제대로 못 하던 아이들이 국어 수업 참여한다고 피자까지 포기하고는 눈 반짝이며 오고, '사람이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면'이라는 구절과 자조적인 말들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는 아이들 마음에 공감이 돼서 마음이 기우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여름>

물론 책이 내내 따스한 시선인 것은 아닙니다. 소년원 나가고도 다시 돌아오는 걸 예사로운 일이라 여기는 아이들, 초기 멤버가 전부 떠나고 면전에서 '씨발'을 듣게 되는 작가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덕분에 생각보다 쉽게 균형 잡힌 시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줄타기에서 '슬기로운 감빵생활'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따뜻한 시선인 건 사실이죠. 작가는 본인이 천사 같은 선생님이 아니고 아니다 싶을 때 참치 못하고 쏘아붙이는 버릇을 못났다고 여기지만 말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참 어렵습니다. 천여 명 가까이 되는 소년원 아이들을 사회와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터진 선례가 있는 폭탄인지, 가정과 사회라는 타의에 의해 희생된 소년인지, 아니면 어쨌든 이건 죄 짓지 않고도 딛고 일어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은 아닐지... 다 맞는 말이라 참 어렵습니다.

작가가 열심히 아이들을 훈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소년원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못합니다. 드라마 만들면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소년원 미화 소리 들으려나 모르겠네요.

〈가을〉

작가의 기억 미화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소년원 아이들은 국어 수업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더 좋게 보이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비교는 거의 없지만, 일반적인 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사뭇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성인 포함 남자아이들인데 간식, 스티커, 아이돌 사진이 적극 활용되는 수업이라니... 온갖 재미있는 것들이 넘치는 사회 학생들 대상으로 이것만 가지고 참여 유도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의 낮은 학력, 재미있는 것이 덜한 소년원이라는 점이 성실한 참여에 크게 한몫했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선생님의 노력이 무의미하다, 미미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래 문구가 좀 와닿았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 되는 부분도 있었구요.

*소년원에 갇혀 있는 동안이야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사회로 나가면 다시 나쁜 짓 하며 살아
갈 아이들이야. 타인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들이 책은 읽어 뭐 해. 남한테 해나 안 끼치고 살
면 다행이야.*

〈소년을 읽다〉 116p

하지만 그럼에도 왜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여 책을 읽고 기록을 남겨 책까지 출판했을까요? 그 이유는 책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고, 독자 스스로의 추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겨울〉

겨울과 에필로그 장까지 가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보다 뚜렷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해당 장에서 제 글은 사족이 될 것 같아 인상 깊은 구절 인용 중심으로 남깁니다. 책 표지에 적힌 추천사 4개 중 3개가 책 속 등장하는 소년원에 가셨던 작가분들이라는 걸 이쯤에서야 알았습니다.

*소년원은 교도소인가. 아니다. 교정과 보호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은 교육기관이라 보기 어렵다.*

〈소년을 읽다〉 167p

우리 사회는 그들이 행동을 교정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일까. 한 인간으로서

의 존재를 실현하지 않아도 좋으니, 좋은 삶을 살지 못해도 좋으니, 사회의 저 아래에서 우리에게 무해한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기만을 바라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가 지은 죄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가해자인 소년을 영원히 가둘 수 있다면 그저 가두면 된다. 가두는 것만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는 곧 우리의 이웃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무엇보다 영혼을 지닌 하나의 존재로, 우리 곁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죄값을 치르는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하는 까닭이다.

〈소년을 읽다〉 215p

아래는 작가에 대한 제 감상을 대신하는 박찬일 셰프의 추천사입니다.

기억력이란 건 관심에서 시작된다. 기록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그 많은 순간의 정밀한 복원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관심을 넘은 사랑이라고 단순히 표현할 수 없는 초월적인 무엇이 문장에 서늘하게 배어 있다. 수업이 아니라 교육이 아직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저자에게서 느끼게 된다.

〈소년을 읽다〉 219p

과거 공부 못했던 핑계 겸 말하자면, 저는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진 동네에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수업에서 동화책 읽어주던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기억이 질게 남아있는 분 중 한 분입니다. 교사에게 책을 던지고, 부모님 생사 오고 가는 대화를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되더라고요. 앞서가을 장을 읽을 때 선생님 생각을 하니 간식, 스티커, 아이돌 사진 활용한 수업이 잘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선생님은 훗날 EBS 가시거나 인강 강사 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교생 나갔을 때 만났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참 이 책 답다고 해야 하나. 엔딩은 당시 막 유행했던 코로나 엔딩이라 아이들에게 이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흐지부지됩니다.

책은 집중해서 3시간 정도 걸려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소년원에서 왜 책을 아껴 읽거나 여러 번 읽은 건지 이해가 갑니다.

읽으면서 교사 생각 접은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생 때도 느꼈지만, 전 작가분처럼 될 자신이 없습니다. 초반에야 누구보다 열정 가득 진심으로 다가갈 자신은 있는데, 끝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육 관련된 이야기 들으면 귀가 쫑긋 서고 공감도 많이 돼서 자꾸 기웃거리게 되네요.

여하튼 교사의 짝사랑과 경험에서 우러난 생각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추천해 준 '문학청년'의 '소년을 읽다' 감상문 링크를 남기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한번이라도 소년범의 입장을 헤아려본 적이 있는가 [소년을 읽다]

‘힐링’을 전하기로 작정한 듯한 책들을 지금까지 많이 읽어왔지만, 근래에 ...

blog.naver.com